

인자의 삶과 피

예수님은 참사랑을 위해 인자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를 위해 삶과 피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인자의 삶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만민청년들 '문서선교의 날'

만민중앙교회 청년 대학 가나안 바울 마리아 5개 선교회 젊은이들이 '문서선교의 날'을 갖고 있다.

젊은 그대들은 만민의 희망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실한 성도로, 교회 밖에서는 확실한 일꾼으로 섬기는 생활을 하고 있는 체육 연예 의료 기업 등 전문직 종사 청년 성도들 이야기

해외 성도들도 "하나님께 응답받았어요"

가족의 건강과 축복을 체험 전도에 나선 케냐 성도와 이재록 목사 음성전화사서함 기도 응답으로 고혈압과 중풍을 치유받은 러시아 성도의 간증

만민뉴스

MANMIN NEWS

제405호 2009년 11월 15일 (주간)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돈없어 공부못하는 학생없어야” 우리 교회 성도 자녀 약 1만 명에게 장학금 수여

2009년 4분기 장학금 138명 받아

지난 11월 8일, 주일 저녁예배 시 본당에서 우리 교회 구제위원회 장학부 주관 4분기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이날 나신희(여·13·소화초), 김유민(여·14·영서중), 박수빈(남·19·독산고) 학생을 비롯한 초·중·고 재학생 138명에게 장학금이 수여됐다.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소년·소녀 가장,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에 지장이 있거나 학교 성적이 타의 모범이 되는 초·중·고·대학생이다. 그 가운데 장학부가 지도교사나 교구장의 추천을 받아 신앙생활과 학업이 분이 되는 학생을 선정해 연 4회(대학생은 2회) 분기마다 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생 선정을 담당하는 장학부 부장 최영신 전도사는 “당회장님께서 ‘우리 교회에는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학생은 없어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했다.

요즘은 국가 차원의 복지혜택이 비교적 잘

되어있지만 부모의 사업부도나 질병 등 갑작스런 일로 인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의 청소년을 찾아 장학부에서 지원한다. 우리 교회 장학 기금은 매점과 자판기 수익금, 교회 재정과 당회장 이재록 목사와 이규동 장로의 후원을 통해 조성된다.

2005년부터 장학 사업에 동참한 이규동 장로(53·(주)우림에셋플러스, 우림종합상조)는 “하나님의 큰 축복과 비전을 바라보며 우림에셋플러스를 창업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되지 않아 폐업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에서 ‘아니! 내가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씨앗을 심자!’라는 마음으로 장학금 후원을 했지요. 그 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장학금받은 학생들이 예쁘게 성장한 것을 보면 흐뭇합니다.”고 전한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 7년간 질병으로 인해 가난을 체험했기에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에 주력했다. 이에 1982년 교회 개척 때부터 꾸준히 장학 사업을 했고 1995년 구제위원회(위원장 이수진 목사) 아래 구제부와 장학부를 두어 활발히 그 뜻을 전개했다. 현재까지 약 1만 명의 학생들



지난 11월 8일, 저녁예배 시 본당에서 구제위원회 장학부 주관 4분기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장학부 부장 최 전도사는 한 번은 교회에 잘 나오지 않아서 지도교사들도 있고 지내던 학생을 당회장님께서 찾으시면서 ‘살펴봐 달라’고 하셨는데, 그 학생을 찾아 장학부에서 도움을 주었던 일이 기억난다고 했다. 이어 “많은 학생이 후원을 받아 무사히 학업을 마

치고 사회인으로, 교회 직원으로, 닛시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전한다.

앞으로도 장학부에서는 장학금 수혜 대상을 점차 확대해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후원할 계획이다.

수능 수험생 둔 학부모 기도회 열려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1월 12일에 치러졌다. 시험 당일, 수능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을 위한 기도회가 우리 교회 4성전에서 학생주일학교 교장 김태한 목사의 인도로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점심시간 1시간 제외) 진행되었다.

파키스탄 지·협력교회 목회자세미나 및 손수건집회

파키스탄 자협력교회 목회자세미나 및 손수건집회가 대전만민교회 담임 길태식 목사를 강사로 열린다. 이번 일정은 11월 17일(화) 오전 10시경, 서울을 출발해 파키스탄 라호르, 싸히알, 파이살라바드, 카라치 지역을 순회하며 4회의 목회자세미나와 9회의 손수건집회를 갖는다. 그 뒤 태국 방콕을 거쳐 12월 4일 서울에 도착한다.

■ 손수건집회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기도해 준 즉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간 것처럼(행 19:11-12) 오늘날도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기도해 준 손수건을 통해 놀라운 치료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 권능을 체험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요청을 받고 미국, 인도, 중국, 아프리카 등 해외 곳곳에서 이 손수건을 가지고 집회가 열린다.

장학금으로 공부한 그들은 지금...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할 수 없었던 만민 성도 가정의 많은 학생들에게 꿈과 하나님 사랑을 심어줬다.

밀양 만민 교회를 담임하는 문태규 목사는 1990년 대학교 4학년 때 장학금을 받았다.



문태규 (48세)

“학자금 대출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여 어렵게 학비를 마련하곤 했는데, 당시 청년회장이었기 때문에 하계수련회 준비하느라 아르바이트를 못했어요. 학비가 없어 2학기 등록을 못하고 고민하고 민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지도교사님 추천으로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큰 힘이 되었지요.”

삼성전자 식문화연구센터에서 근무하는 한나경 자매는 이렇게 고백했다.



한나경 (24세)

“중고등학교 시절 교회 장학금으로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었어요. 어려운 교회 재정 상황에서도 사랑으로 늘 구제해주는 손길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어엿한 사회인이 된 지금도 교회에서 주신 장학금의 은혜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재능과 열정을 교회에 위해 헌신하고자 소망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서경대학교 무용과에 재학 중인 김초름 자매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장학금을 받아왔다.



김초름 (21세)

“어려운 상황인지 알지만 꼭 무용을 하고 싶었어요. 교회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제 달란트로 교회 일도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그녀는 지난 학기 학교에서 학업우수 장학금을 받으며 우리 교회 예능위원회 예술선교단 단원으로 충성하고 있다.

성찬식은 인자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는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과 피를 다 내어 주신 사랑을 기념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는 예식입니다. 물론 성찬식의 떡을 먹고 포도즙을 마신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추수감사절을 맞아 떡과 포도즙의 의미나 성찬식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1.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근본 하나로서 큰 영광 중에 계시던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피조물과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과 배고픔, 피곤함, 추위와 더위 등, 모든 삶의 고통을 겪으셨지요. 더구나 마지막에는 온갖 멸시와 고난을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온전히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기에 이를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 받아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생하신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 주시며 여러분을 천국에 들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진정한 사랑을 나눌 대상을 얻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율법을 지키는 자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소원에 응답해 주시고 축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조건적인 신앙을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는 “그리 아니하실 쟈라도” 곧 어떤 고난과 역경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는 자녀입니다. 두려워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를 원하셨지요. 그런 자녀들과 세세토록 사랑을 나누며 천국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 가장 귀한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 주신 것입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인자의 살과 피

예수께서 이르시되...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요 6:53-55)

2.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

오늘날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며 사랑을 주고받는 참 자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입술로 “주여 믿습니다.” 고백한다고 해서 다 참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요 6:54)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1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했고 요한복음 1:14에는, 하나님,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 했지요.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양식 삼는 것이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선으로, 사랑으로 채우는 것이지요. 이렇게 인자의 살을 양식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자의 피를 함께 마셔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과 동시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비유를 들면,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수분을 함께 섭취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분없이 건조한 음식물만 계속 섭취한다면 아무리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해도 소화시킬 수 없습니다. 수분이 함께 공급되어야 우리 몸이 노폐물을 배설할 수 있고 새로운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진리를 배우면 반드시 그것을 행해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마음에 있던 비진리가 점점 빠져 나가고 그 자리에는 진리가 채워지지요. 미움이 빠져 나가고 사랑이 채워지며 교만이 빠져 나가고 겸손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7에 “자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지요. 여기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피를 함입어 죄 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빛 가운데 행해야만 합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지켜야 할 의무를 강요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살과 피를 다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진리대로만 행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한 축복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시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32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했습니다. 독생자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성결을 향해 달려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올해도 참으로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마음 깊이 새기고 더욱 부지런히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심으로 온전한 성결을 이루시기 부탁드립니다.

* 11월 15일 주일 저녁예배 말씀입니다. 자세히 보시려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www.manmin.org)에서 ‘설교’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단신

케냐 ‘국제기독교출판콘퍼런스’ 참가

11월 1일부터 6일까지 케냐 리무루에서 ‘국제기독교출판콘퍼런스(World Conference of Christian Publishing)’가 열렸다. 콘퍼런스에 참가한 케냐 나이로비만민 성결교회 한진범 목사님과 보고 목사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러시아, 몽골, 싱가포르, 인도, 아랍에미리트, 브라질 등에서 온 출판 관계자들과 이재록 목사 저서 출판, 유통을 협의했다.

만민중화신학원 주의 종 세미나

만민중화신학원(원장 김경희 목사) 주최, ‘주의 종’ 세미나가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대만만민교회에서 진행됐다.

강사로 선 김 원장은 만민국제신학교 교재에 실린 ‘악한 영의 세계에 대해 강의했다. 강의 후에는 한 시간 동안 능력반기 위한 성령충만기도회를 가졌다.

만민 청년들의 ‘문서선교의 날’

청년·대학가나안·바울·마리아 5개 선교회 젊은이들이 ‘문서선교의 날’을 갖고 있다. 기관별로 진행하는 마리아선교회를 제외하면 모두가 선교회별로 한 달에 한 번, 한 날을 정해 생명의 말씀과 풍성한 간증이 수록된 ‘만민뉴스’를 전하며 영혼 구원에 힘쓰고 있다.

청년선교연합회 권상내 회장은 “이 행사를 꾸준히 실행하면서 회원들이 기쁨으로 하나 되었고, 그렇게 심었더니 그 열매로 새신자들을 보내주셔서 부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만민 청년들의 더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청년선교회에서 ‘문서선교의 날’을 맞아 노방 전도를 하고 있다

교무국 사무실 이전

우리 교회 교무국이 본당 지하 사무실에서 새성전 안내실 옆으로 자리를 옮겼다. 전화는 예전 그대로 02)818-7090-8을 사용한다. 교무국에서는 성도들의 교적 관리는 물론 ‘새신자 5주 교육 프로그램’, ‘새신자를 위한 성령충만기도회’ 등 우리 교회에 새로 전도되어 온 사람들을 위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 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번지
대표전화 02) 818-7000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성결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셉성결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대학·가나안·청년·바울·마리아]	8:00 PM
빛과소금 수요일예배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나엘철야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젊은 그대들은 만민의 희망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실한 성도, 세상 속에서는 확실한 일꾼

기독교 역사가 100여 년이 훌쩍 넘은 지금, 한국 교회에 젊은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는 기독교계 안팎의 걱정거리이다. 그에 비해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의 열기가 대단하다. 각종 예배 및 매일 밤 열리는 다니엘철야기도회까지 곳곳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젊은이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각 선교회 모임이나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젊은이들의 찬양예배는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만민의 젊은이들은 사회생활도 확실하게 한다. 주께 받은 각자의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젊은이들 가운데 몇 명을 소개한다.

◆ 가화병원 정신과 과장 선지영 집사(여·서울 동작구 사당동) 그녀는 중앙대 의대 본과 4학년 때 우리 교회에 오면서 연약했던 몸이 강건해졌다. 하룻밤만 새도 초주검이 되던 그녀는 때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으며 이겨냈고, 당직을 주 5일 서야 할 때도 하나님



선지영 (의사)



김석출 (교사)



김대성 (배드민턴 선수)



이호승 (바둑기사)



류순주 (보험 텔레마케터)

의 은혜로 해낼 수 있었다. 기도의 힘으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시험을 통과했다. 그녀는 환자들에게 가족처럼 다가가서 평안과 웃음을 주며 참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 구로남초등학교 교사 김석출 집사(36·서울 구로구 가리봉동)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한다. 아이들의 가정환경이나 성장 과정을 고려해 그 입장에서 아이들을 대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설교 중에 들은 내용을 예화로 들어 가르쳐 주기도 하고 서로 존댓말을 사용케

해,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도록 가르치니 욕도 사라지고 싸움도 사라졌다. 그는 아이들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

◆ 배드민턴 선수 김대성 형제(26·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1동)는 수원시청 소속으로 지난 10월에 있었던 제90회 전국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신실한 믿음과 성실함으로 동료들에게 본이 되는 그는 대회에 앞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고 임한다.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꿈인 그는 열심히 자신을 훈련하고 있다.

◆ 아마 바둑 7단인 이호승 형제(23·서울 구로구 가리봉동)도 지난 10월에 있었던 제90회 전국체전에서 동상을 획득했다. 7세부터 바둑을 시작한 그는 화려한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교회에 왔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는 대회 때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으며, ‘본인 스스로도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에 순종해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 보험 텔레마케터 류순주 권사(여·서울 구로구 가리봉동)는 2003년 흥국생명에 입사해 1등을 놓치

지 않고 있다. 작년에는 2천 명의 전국 흥국생명 텔레마케터 중, 실적 대비 1명에게 주는 연도대상을 차지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생각과 고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녀는 일할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확연히 느낀다. 그녀의 표현에 따르면 계약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매월 기도를 받고, 항상 그 기도에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그녀는 더욱 변화된 삶을 살고자 노력한다.

슈퍼주니어 은혁에게 인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



이혁재 형제 (가수, 슈퍼주니어)

인기 그룹 슈퍼 주니어에 속해 있는 가수 은혁(이혁재)은 중학교 2학년 때 SM 엔터테인먼트 오디션에 합격해 연습생 생활을 하다가 2005년 11월, 슈퍼주니어로 데뷔했다.

1998년, 부모님을 따라 우리 교회에 출석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에 은혜를 받고 틈틈이 기도생활을 하며, 권능의 역사들을 보면서 믿음이 성장했다.

그는 연예인은 자칫 무절제해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자

신을 지키려 항상 노력한다.

“술 담배는 하지 않고, 특별한 스케줄이 없으면 주일에 교회에 나갑니다. 팀 안에서도 먼저 섬기려고 하지요. 무대에 오르기 전에는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로 임합니다.”

국내외 공연이나 콘서트를 앞두고 또는 앨범 출반이 되었을 때 그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를 받는다.

성대를 많이 사용하기에 컨디션

이 안 좋을 때에는 무안 단물을 마시고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손수건(행 19:11~12)도 늘 소지하고 다닌다.

2007년 4월 19일 새벽, KBS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키스 더 라디오> 녹음을 끝내고 숙소로 이동하던 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차 안에는 저와 멤버들이 타고 있었어요. 차가 전복되면서 오른쪽 창이 깨졌고 멤버들이 크게 다쳤지요. 그런데 차가 전복될 때 날뻐지

같은 넓은 아무런가 차 위에서 떨어졌고 제 몸은 그 위에 떨어져 유리 조각에 조금도 닿지 않고 다친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 주신거죠.”

그는 지금 KBS1 ‘미라클’, SBS ‘강심장’, ‘스타킹’, KBS2 ‘출발드림팀 시즌 2’, KBS FM ‘스카라’에 출연하는 등 눈코뜰새없이 바쁘다. 인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는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2) 851-3845
070-8240-5609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박재원 자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경제분석팀)

기도 응답으로 ‘UN 국제 회의, 한국대표로 참가’

지난 11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지적재산권 담보회의가 있었다. 판사, 교수, 정부 부처의 공무원, 연구원 등 한국대표단 8명 가운데 우리 교회 박재원 자매도 포함됐다. 이 회의는 세계 60여 개국의 대표단과 전문가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지적재산권 담보’를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고 있는 그녀에게는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다.

“한국대표단으로 선발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어요. 지난 7월, 박사학위 논문 준비를 하면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11월에 국제회의도 개최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고 기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당회장님께서 ‘국제회의에 참가합니다.’라고 기도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대표단으로 선발되기까지 여러

운 고비가 있었으나 조금도 의심치 않았지요. 회의 참석은 지적재산권 담보에 대한 각국의 입장 및 전문가들의 입장을 들으며 인적 네트워크도 쌓을 수 있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 범사가 행통하다는 것을 아는 그녀는 항상 말씀을 통해 자신을 점검하며 기도하기를 힘쓴다.

고단한 삶과 질병... 주님께서 만지고 고쳐주셨습니다

제미마 아냥고 (케냐 나이로비 만민성결교회)

저는 온가타 롱가이에서 식료품 사업을 하는, 여덟 명의 친자녀와 두 명의 고아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남편과 저의 별이로는 식구를 먹여 살리기에 턱없이 부족한 살림, 그야말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수년간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로비 만민성결교회에 등록한 뒤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여덟 번째 임신을 했을 때 11개월이 되도록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 병원을 가 봤지만 결국 재정적 문제로 진료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빈혈로 인해 자주 의식을 잃기도 했습니다. 아러다가 아기를 사산하고 저 또한 죽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2008년 3월, 우연히 패밀리 TV 프로그램을 통해 나이로비 만민성결교회 정명호 목사님의 영적인 믿음에 관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큰 감명을 받은 저는 정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교회에 찾아가 예배를 드린 후, 오후에 열린 환자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정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기 위해 단 앞으로 긴 행렬이 늘어섰습니다. 병명이 기록된 명찰을 찬환자들은 기도받고 "할렐루야"를 외치며 간증했습니다.

"그래 나도 치료받을 수 있어" 그러나 저는 많은 사람 앞에 나갈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 당시 자주 의식

을 잃고 쓰러지곤 했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주저하는 저를 큰 딸 유니스가 단 앞까지 데리고 나갔습니다. 제 차레가 되어 정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 온 몸이 뜨거웠습니다.

"아버지! 이 딸이 순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옵소서"

순간 제 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갑자기 온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습니다.

곧이어 정 목사님은 "이번 주 중에 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 주 화요일 밤에 출산했고, 지금 아기는 튼튼하고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저의 세 살 난 일곱째 아들 에릭은 태어난 지 3주 뒤부터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았습니다. 얼굴은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엉망이었고 밤새도 매우 심했습니다. 이 때문에 살던 곳에서 쫓겨나기도 했지요.

어려운 살림에 배는 돈은 치료비로 충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에릭도 정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치료되었습니다. 에릭은 기도받은 뒤 고통에서 벗어났고 호전되기 시작하더니 3주 후에는 완전히 치료되었습니다. 그 후 얼굴이 다시금 신생아 피부같이 매우 부드럽고 빛이 났습니다.

또한 삽일조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가

난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삽일조를 드리기 시작한 후로 제가 하는 식료품 판매 사업이 확장되었고 남편도 안정된 직업에 종사하게 됐습니다. 작은 집에서 넓은 집으로 이사해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이제는 가족 모두가 병원과는 상관없이 건강합니다. 저의 간증을 듣고 현재 8명이 전도되었습니다.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제미마 아냥고가 남편과 함께하고 있다



극심한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던 아들 에릭에게 기도해 주는 정명호 목사



치료받기 전과 기도받은 뒤 3주 만에 피부가 깨끗해진 에릭



제미마 아냥고(맨 왼쪽)와 가족 일부 (나이로비 만민성결교회 앞에서)

전화로 기도받고 치료되다니, 오 하나님!

알렉산더 소토브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맨 우측부터 알렉산더 소토브, 딸, 아내, 사위(뒷줄)

나는 고등학교 영어 교사이다. 지난 10월 12일 낮 12시 경 수업 중에 쓰러질 뻔했다. 간신히 발걸음을 옮겨 집으로 향했다.

그 날 저녁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지고 혀 오른쪽 부분에 마비 증세가 왔다. 혈압은 170/110으로 심각했으며 병원으로 실려갔다. 다음 날, 검진 결과 고혈압과 중풍이었다. 나는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가 담긴 음성전화사서함이 떠올랐다. 그분의 저서와 설교 및 만민뉴스를 러시아어로 번역하는 아내의 도움으로 성결 복음과 권능 사역을 접하면서 믿음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10월 14일 수요일 아침, 아내는 영어로 녹음된 이재록 목사 음성전화사서함 기도를 받게 해주었다. 1-770-554-5679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 고혈압 중풍, 뇌출혈, ... 다 물러갈자이다. ..."

혈압이 150/90으로 떨어졌다. 컴퓨터 단층촬영 영 결과 뇌손상도 없고 혈압도 정상이었다.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전화로 기도받고 치료가 되다니!" 몇 번이나 혈압 측정을 했는데 130/85으로 정상 수치였다. 시공을 초월한 이재록 목사 음성전화사서함 자기도를 통해 치료받은 것이다.

10월 23일에 다시한번 최종 검진을 받았다. 주치의는 "아무런 이상 증상도 없고 혈압도 정상입니다. 순간적으로 중풍이 왔지만 그냥 지나간 것 같습니다."라고 밝은 얼굴로 말했다.

* 위 간증들은 본인이 보내준 간증을 우리말로 번역해 정리했습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4575-4194
- 서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0번지 벽성 B/D 7층 ☎051326-4537, 010-5521-207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356-4717, 010-2018-8410
- 새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70-8764-3000, 010-712-3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회동 37-1 ☎042625-1205, 633-6283, 011-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동 1181 ☎062372-1002, 011-601-10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1001-2 ☎062266-7001, 011-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9663-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6-9870-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6-278-7712
- 평택만민교회 경기도 평택시 목곡동 488 삼익 2차 10동 704호 ☎031665-1405, 011-358-5973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안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룡동 564-15 ☎041667-4721, 010-3708-1537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1-701-0244
- 사령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령동 956 ☎016-215-0116, 010-4155-588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1100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마산시 회원구 회원2동 626-1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리동 1524-14 ☎055353-9192, 010-3745-2119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리 301-5 ☎055852-5815, 010-2536-2515
- 익산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8-605-2254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정주시 중앙동 95-3 ☎055289-9522, 011-9331-4405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5214-8891
- 속초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강릉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호지동 192-3 2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구미시 오대동 742-4 ☎054464-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문덕동 500-5 ☎061652-8311, 010-3592-9522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873-6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63 ☎061452-7443, 010-3153-172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호지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동 200-3 ☎063853-0675,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67-1 ☎033251-1144, 010-7770-2073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63-64 ☎033637-0271, 010-7733-3731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영주동 12-2 ☎033641-3790, 017-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연동 2307-5 ☎0641745-0675, 010-2468-2251
- 영동만민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0-5 ☎02556-8517-8, 010-7223-2073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88-26 ☎02965-9351, 011-1717-1217, 011-719-2073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곶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0-7720-7369
- 김포지성전 인천시 서구 미전동 688-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357-4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52-3 ☎02489-3766, 016-7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5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동 349-5 ☎02489-3766, 016-776-1014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80-2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9번지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55-4 ☎031835-9103, 016-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 65-1 ☎031840-2306, 019-251-3149